



numbers

vol. 248

한국인과 돈

개신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 줄고 '돈' 늘어!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대한민국 치매 현황
- ② 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

2024. 7. 16.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개신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 줄고 '돈' 늘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어떤 대상과도 비교 불가한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긴 만큼 돈을 숭배하는 물질만능주의, 즉 배금주의 문화가 전 시대적 현상이 된 지도 오래다. 교회와 성도는 이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번 넘버즈는 '돈'을 주제로 하여 가정에서의 돈의 흐름(가정 경제), 돈에 대한 국민과 개신교인의 인식 등의 데이터를 모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 대다수(88%)가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에 동의해 우리사회에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돈에 대한 걱정과 인식은 개신교인도 마찬가지였는데, 개신교인의 가장 큰 고민은 지난 10년 사이 '건강'에서 '돈'으로 바뀌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정'은 줄고 '돈'은 증가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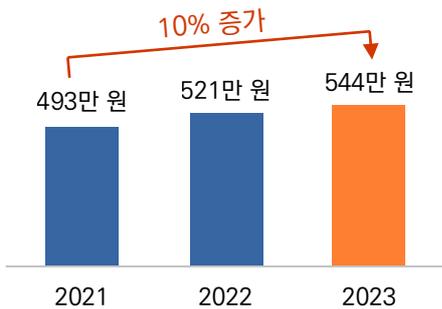
01

[가정 내 돈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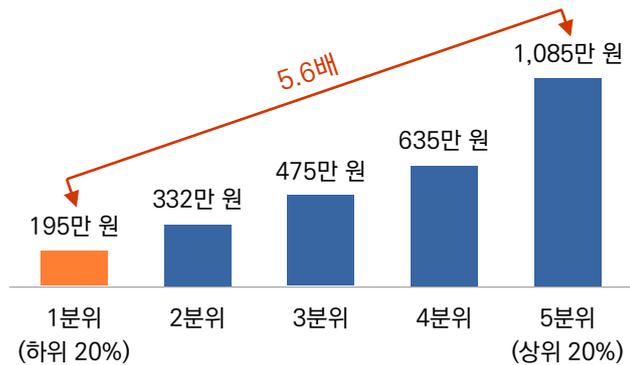
상위 20% 가구소득, 하위 20%보다 5.6배 더 많아

- 우리나라 가구의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생활 관련 데이터(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가 최근 발표되었다.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조사를 통해 한국인들의 금융 생활 실태·관심사 등을 살펴본다.
- 경제활동자들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2023년 544만 원으로 2021년 493만 원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을 5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구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하위 20%인 1분위는 195만 원, 5분위(상위 20%)는 1,085만 원으로 소득 양극단 그룹 간 차이는 5.6배에 달했다.

[그림] 월평균 가구 총소득 (경제활동자)



[그림] 가구소득 구간별 월평균 가구 총소득 (경제활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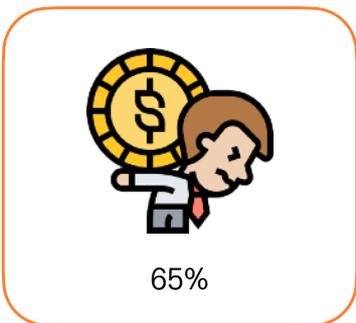


※출처 :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2024.04.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 이메일조사, 2023.10.~11.)

3가구 중 2가구는 부채 있어!

- 전체 경제활동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5%로 3가구 중 2가구가 부채가 있었고,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 잔액은 '1억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부채 보유율 (경제활동자)



[그림] 평균 부채 잔액 (부채 보유 가구)



※출처 :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2024.04.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 이메일조사, 2023.10.~11.)

02

[직장과 돈] 한국 직장인, '워라밸'보다 '돈'!

- 직장 선택 시 고려 요인을 세대별로 비교해 살펴본 결과, 모든 세대에서 '연봉'을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했다.
- 젊은 연령대인 Z세대와 M세대는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추구하는 경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복지'와 '회사의 비전'을 고려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림] 세대별 직장 선택 시 고려 요인 (경제활동자)

	연봉	워라밸	복지	회사의 비전	개인의 성장 가능성	회사 규모/인지도
Z세대 (20~28세)	48%	26%	10%	6%	6%	5%
M세대 (29~43세)	49%	25%	7%	7%	7%	5%
X세대 (44~58세)	51%	19%	11%	8%	6%	5%
베이비부머세대 (59~64세)	42%	16%	17%	10%	1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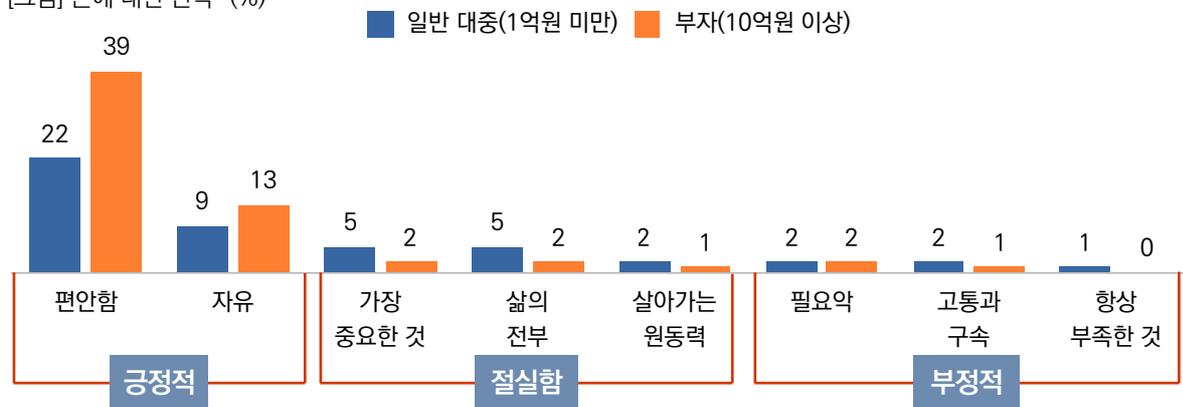
※출처 : 신한은행,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24', 2024.04.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 이메일조사, 2023.10.~11.)
 Note) 세대 구분 기준: Z세대 20~28세(1995~2003년생), M세대 29~43세(1980~1994년생), X세대 44~58세(1965~1979년생), 베이비부머세대 59~64세(1959~1964년생)

03

[돈에 대한 인식] 나에게 돈이란? 부자일수록 긍정적 키워드 연상 더 많아!

- '나에게 돈이란 OO이다'라는 물음에 빈칸을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한 '일반 대중(가구 금융자산 1억원 미만)'과 '부자(가구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인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 대중과 부자 모두 '편안함'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다만 부자는 일반 대중보다 '편안함', '자유'란 긍정적 키워드를 더 많이 선택했고, 반면 '일반 대중'은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전부', '살아가는 원동력' 등 절실함을 보여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돈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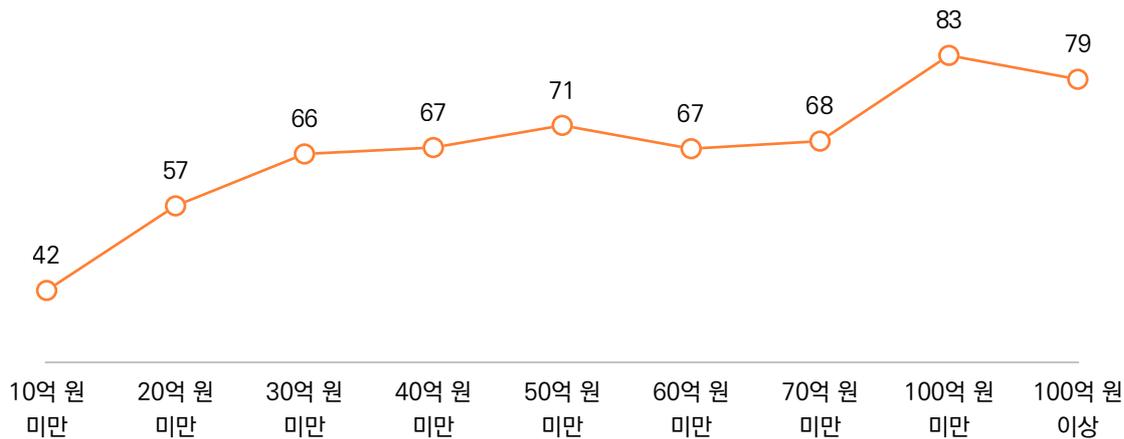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03. (부자 746명, 대중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 온라인 조사, 코리아 리서치, 2023.12.)
 Note) 가구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부자': 10억 원 이상 보유자, '일반 대중': 1억 원 미만 보유자
 *주관식 문항 정리

돈이 주는 삶의 만족, 한계점 존재해!

- 돈과 행복과의 관계는 넘버즈 149호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이번에는 소득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보유 자산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다.
- 행복 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는 경제력이 높아지면 행복도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해 기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경제력이 개선되더라도 행복이 함께 높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스털린의 역설). 조사 결과 총자산 30억 원까지 삶에 만족도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그 이후 70억 원 미만까지는 정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정비례하여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은 돈이 주는 만족도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총자산별 삶의 만족도* (%)



※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2024.03. (부자 746명, 대중 부유층 1,139명, 일반 대중 712명 등 총 2,597명, 온라인 조사, 코리아 리서치, 2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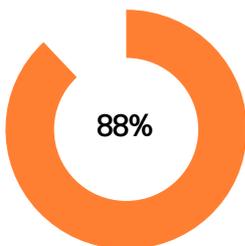
*5점 척도 중 '매우+약간 만족' 비율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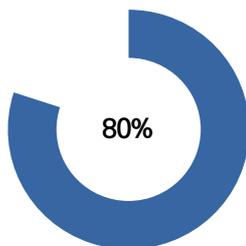
- 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에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동의했고,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이다'에도 10명 중 7명은 그렇다고 응답해 인간의 모든 욕망이 돈으로 가치화되는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 돈에 대한 인식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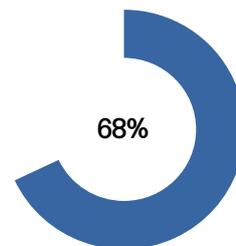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경험과 시간 소비 관련 인식', 2023.07.14.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12.~07.14.)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 경제 선진국 중 한국만 '돈'이 1위!

- 돈에 대한 인식은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가 17개 경제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What Makes Life Meaningful?)'에 대한 답변으로 G7국가 및 전체 조사 대상 17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material well-being)'를 1순위로 꼽았다. 다수의 국가가 1순위로 '가족'을 꼽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 한국은 1순위 '물질적 풍요' 이외에 2순위 '건강', 3순위 '가족'을 꼽아, '가족'이 3순위가 된 유일한 국가였다.

[표]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것** (한국 외 G7국가, 상위 3위)

국가	1위	2위	3위
대한민국	물질적 풍요	건강	가족
프랑스	가족	직업	건강
캐나다	가족	직업	물질적 풍요
일본	가족	물질적 풍요	직업
영국	가족	친구	취미
미국	가족	친구	물질적 풍요
독일	가족	직업/건강	
이탈리아	가족/직업		물질적 풍요

※출처 : Pew Research Center, "What Makes Life Meaningful? Views From 17 Advanced Economies, 2021.11.18. (17개 경제선진국 성인남녀 18,850명, 전화/온라인조사, 2021.02~05)

*이 조사 결과는 넘버즈 121호에 게재된 것으로 이번 호 주제와 연관되어 다시 한번 제시하였음

**주관식으로 3개까지 응답을 받아, 항목별 응답률 순위를 집계한 것임

Note)조사 대상 국가(17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캐나다, 싱가포르,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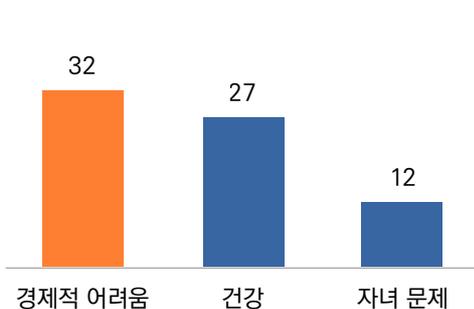
04

[개신교인과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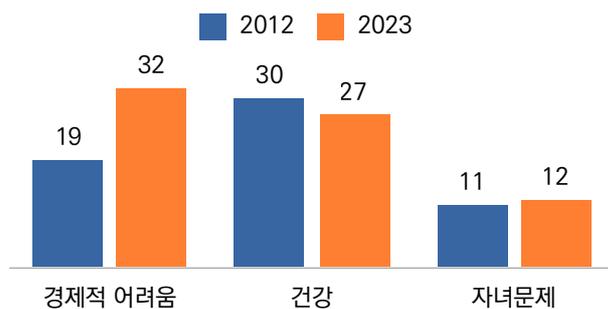
개신교인의 고민거리, 지난 10년 사이 '건강'에서 '돈'으로 바뀌어!

- 이번에는 돈과 관련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 '경제적 어려움(3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27%)', '자녀 문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민거리에 대한 변화를 보면 10년 전인 2012년에는 '건강'이 가장 많았으나 2023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아졌으며 그 비율도 13%p나 높아졌다.

[그림] 요즘 고민거리 (개신교인, 상위 3위, %)



[그림] 고민거리 변화 (개신교인, 상위 3위, %)



※출처 : 한국기독교교육자협의회, 「한국기독교교본서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3040세대, 전연령층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커

- 이번에는 연령별로 요즘 가장 큰 고민을 파악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2순위 안에 들었고 특히 30,40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연령층 중에서 3040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표] 연령별 요즘 고민거리 (개신교인, 상위 5위)

	1위	2위	3위	4위	5위
19~29세	진로/학업 (42%)	경제적 어려움 (21%)	부모와의 관계 (6%)	직장문제/상사와의 갈등 (6%)	이성 문제 (6%)
30대	경제적 어려움 (40%)	직장문제/ 상사와의 갈등 (15%)	건강 (12%)	자녀문제 (9%)	진로/학업 (9%)
40대	경제적 어려움 (34%)	건강 (23%)	자녀문제 (14%)	직장문제/ 상사와의 갈등 (13%)	진로/학업 (4%)
50대	건강 (35%)	경제적 어려움 (32%)	자녀문제 (17%)	직장문제/ 상사와의 갈등 (4%)	진로/학업 (3%)
60세 이상	건강 (37%)	경제적 어려움 (31%)	자녀문제 (14%)	직장문제/ 상사와의 갈등 (4%)	부부 관계 (4%)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개신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정' 줄고 '돈' 늘어!

- 개신교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2023년 기준 '건강(33%)', '가정(18%)', '신앙(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는데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돈'과 '건강'은 증가했지만 '가정', '신앙'을 꼽은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개신교인, 상위 4위,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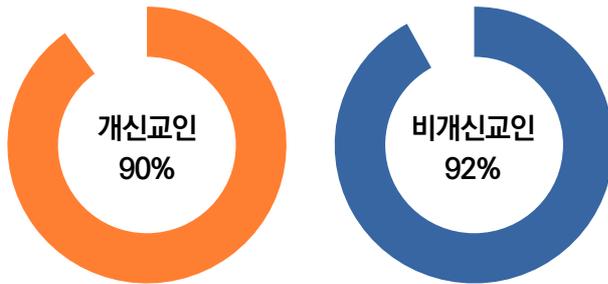
*원 보기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

‘돈 = 성공’,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인식 차이 없어!

- 돈이 곧 성공일까?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게 돈과 성공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란 제시문에 ‘개신교인’ 90%, ‘비개신교인’ 92%가 동의해 두 그룹 모두 차이 없이 돈 있는자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림] 돈과 성공의 연관성 인식 (‘매우+약간 동의’ 비율, %)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이번호 요약

1. 한국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 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물질 만능주의가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2. 한국인, 삶의 우선순위가 '돈'인 경향 높아

-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으로 다른 경제 선진국은 '가족'을 1순위로 선택했지만, 한국만이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순위로 꼽았다.

3. 돈이 중요한 가치이자 성공이라는 인식, 개신교인도 마찬가지

- 개신교인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6년 전 조사 결과 대비 '돈'과 '건강'은 증가했지만 '가정'을 꼽은 비율은 줄었다.
- '우리 사회는 돈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이다'에 대해 비개신교인은 92%가 동의했는데, 개신교인도 90%나 동의해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칼럼\] 물질주의의 굴레,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병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 ▶ [\[칼럼\] 웨슬리의 경제윤리의 성서적 배경 \(김영봉 목사, 성결신학연구소\)](#)
- ▶ [\[영상\] 크리스천의 스마트한 경제생활 \(한국크라운재정사역 신이철 대표, CGNTV\)](#)

관련 성경 구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24)

목회 적용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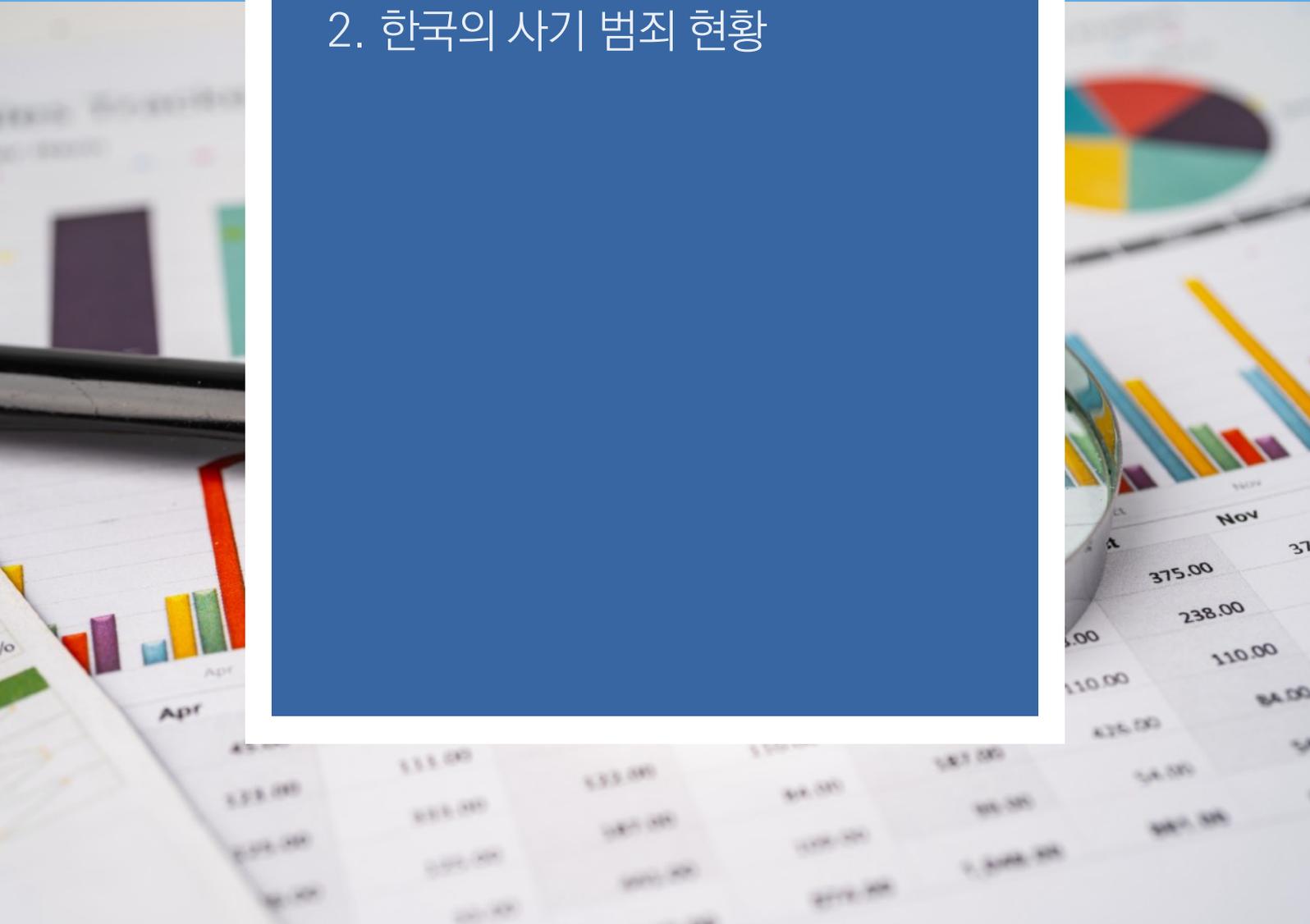
한국은 GDP 14위(2024)의 경제 선진국이지만, 세계 행복 순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넘버즈 234호) 이러한 결과는 돈을 삶의 우선순위가 목적으로 보는 국민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성경에는 '돈', '재물'과 관련한 단어가 '사랑'보다도 4~5배가 더 많이 등장한다. 그만큼 성경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다. 교회는 성경적 물질관에 교회의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가 점검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돈'에 대한 성경적 교육은 매우 시급하다. 많은 청소년이 물질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관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세상적인 성공'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교회는 돈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가 되는 이 시대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대한민국 치매 현황
2. 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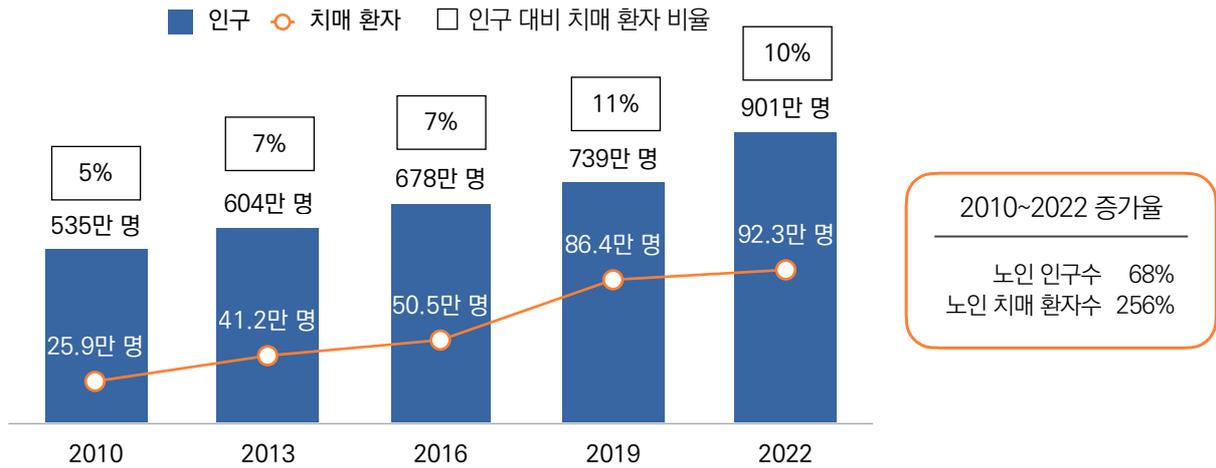




[대한민국 치매 현황]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가 치매!

- 3년 주기로 발표되는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2023)를 통해 한국 노인의 치매 현황을 살펴본다.
-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수는 92.3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10%에 해당했다. 지난 12년 사이 노인 치매 환자 수의 증가율은 256%로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68%)보다 크게 높았다.

[그림] 노인 치매 환자 수* 추이 (65세 이상)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2024.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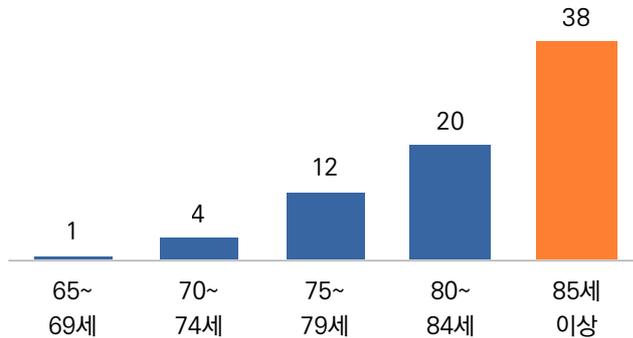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0’, 2021.04.15. (전국 치매상병자수 현황 2010~20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상병자(치매상병코드(6개)를 주상병으로 받고 입원, 외래, 약국 1회 이상 이용한 사람) 기준

85세 이상, 10명 중 4명이 치매!

- 치매로 추정되는 노인 환자는 같은 연령 인구 대비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80~84세’는 20%, 85세 이상은 38%로, 8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 정도가 치매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연령별 인구 대비 추정치매환자* 비율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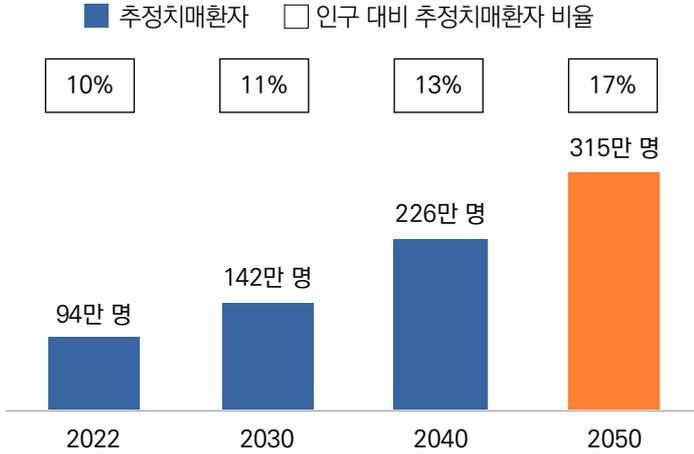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2024.06.28.

*2016년 치매역학조사를 통해 산출한 유병률과 주민등록연앙인구(통계청)를 중앙치매센터에서 재산출함

2050년 노인 치매 환자 300만 명 넘어설 것

- 향후 65세 이상 노인 추정치매환자 규모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매환자의 수는 20년 뒤인 2040년에 226만 명, 2050년에는 315만 명까지 증가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은 2022년 10%에서 2050년이 되면 17%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노인 추정치매환자수 예상 (65세 이상)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2024.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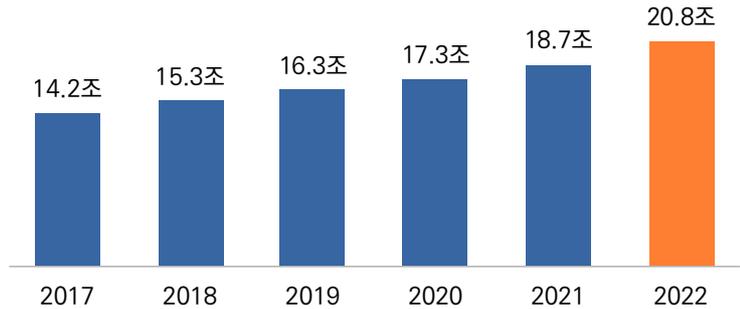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2천만 원 넘어

- 그렇다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얼마나 될까? 2022년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220만 원,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20.8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앞서 추정치매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 치매 관리 비용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2022)



[그림] 국가 치매 관리 비용* (65세 이상, 원)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3', 2024.06.28.

Note)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직접 의료비, 직접비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비, 간접비로 구성

- 직접 의료비 : 치매 치료를 위한 비용

- 직접비 의료비 : 간병비, 교통비, 보조물품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비 : 노인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 간접비 : 조기 퇴직 등 치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국가 치매 관리 비용 =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x 65세 이상 추정치매환자수



[한국의 사기 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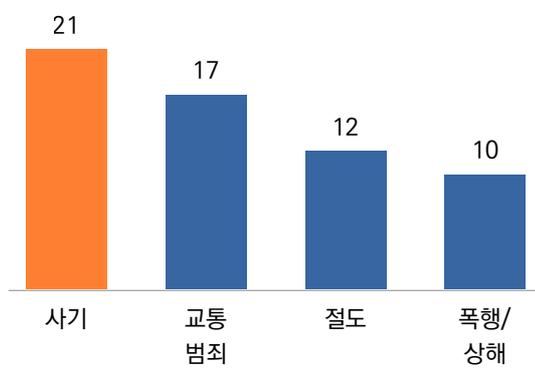
한국 주요 범죄 중 사기 범죄가 단연 1위!

- 2022년 큰 이슈가 되었던 전세 사기부터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는 보험 사기, 2023년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를 상대로 행한 결혼 사기(전청조 사건) 등 한국 사회 내 사기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업데이트된 '대검찰청의 2023 범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이중 사기 범죄가 실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약 157.5만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2년 대비 22% 감소한 수치이다.
- 주요 범죄 유형의 비중을 살펴보면 '사기' 21%, '교통 범죄' 17%, '절도' 12%, '폭행/상해' 10% 순으로 4대 범죄가 전체 범죄 중 60%를 차지했는데, 이중 '사기'가 1위를 차지했다.

[그림] 전체 범죄 발생 건수 (건)



[그림] 전체 범죄 중 주요 범죄* 유형별 비중 (2022,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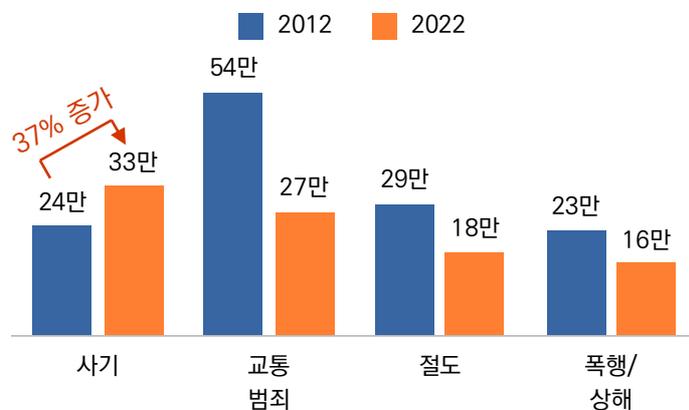
※출처 :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주요 범죄 유형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절도, 사기, 교통범죄, 13세 미만 아동대상 범죄 등 9개 유형을 제시함

지난 10년간 주요 4개 범죄 중 사기 범죄만 증가!

- 주요 범죄 유형 중 4위권에 해당하는 범죄를 뽑아 지난 10년 전(2012년) 대비 발생 건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기'의 경우 2012년 약 24만 건에서 2022년 33만 건 정도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통 범죄', '절도', '폭행/상해' 등 나머지 3개 범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요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변화 (상위 4위, 건)



※출처 :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 폭행/상해, 절도, 사기, 교통 범죄,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 등 9개 유형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90호 \(2024년 7월 2주\)](#)

-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등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6호 \(2024년 7월 2주\)](#)

- 현직 검사 4인 탄핵 추진에 대한 평가, 최저 임금 동일 적용 결정에 대한 평가 등

사회 일반

[폐지줍는 노인 전국에 1만5천명...월소득 77만원 불과](#)

연합뉴스_2024.7.9.

[65살 이상 1000만명 첫 돌파...‘초고령사회’ 눈앞](#)

한겨레_2024.7.11.

[40대 출산에... '할마·할빠'도 10년씩 뒤로 밀려](#)

조선일보_2024.7.13.

[\[단독\] 출퇴근 산재 지난해 첫 1만건 돌파...28%는 교통사고](#)

중앙일보_2024.7.10.

[한국 성인 69% '갤럭시 사용자'...20대 64%는 아이폰 쓴다](#)

한겨레_2024.7.11.

[작년 취업하러 한국 온 외국인 17만3천명...역대 2위](#)

연합뉴스_2024.7.11.

[10년새 '급발진' 신고자 연령 따져봤더니...절반 이상이 50대 이하](#)

중앙일보_2024.7.10.

['안티에이징'에서 '웰에이징'으로 "몸도 맘도 건강하게 '잘' 늙자"\(웰에이징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7.12.

청년 · 청소년

[서울 학생, 1년새 1만7000명 줄어...유치원생은 4년간 7만명 급감](#)

조선일보_2024.7.11.

[부모 품 못 떠나는 20~30대 청년들](#)

조선일보_2024.7.13.

경제 · 기업

[블루칼라 열풍 설문조사해보니...취준생 10명 중 7명 '블루칼라' OK](#)

매일경제_2024.7.11.

["드디어 퇴근, 어디 갈까?"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은?](#)

동아일보_2024.7.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직장인 서베이\] MZ세대에게 '자율복장'이란...](#)

더스쿠프_2024.7.2.

["작년 종합건설업 수익 사실상 '0'...건설업 3高·3低·3不 위기"](#)

연합뉴스_2024.7.11.

[폐업 후 일자리 못 찾는 자영업자들...실업자 23.1% 증가](#)

SBS뉴스_2024.7.15.

국제 · 환경

['기후변화' 두드러진 작년 겪고 나니...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연합뉴스_2024.7.9.

[화장실 표시부터 달라...일본엔 치매노인 위한 도시 있다](#)

한겨레_2024.7.9.

건강

["하얀 피부가 자외선에 더 위험"...일광욕 뒤 꼭 해야할 것](#)

중앙일보_2024.7.15.

기독교 · 종교

[접속하라, 신앙 공동체가 되리니... 분당우리교회 구독자수 1위](#)

국민일보_2024.7.12.

[미 복음주의 교인 열 중 넷 온라인 주일예배... 교회 쇼핑 3배 ↑](#)

국민일보_2024.7.16.

[미 한인 교인 54% "10년 뒤 한인교회 쇠퇴할 것"](#)

국민일보_2024.7.16.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 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벚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B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원장 신원하)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 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시니어 목회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대안 발표회

- 일시 : 2024년 7월 31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연동교회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 참여방법 : 신청링크나 QR코드를 통해 참가 신청서 제출
- 본 발표회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구독자 모니터링단 N-멤버스 1기 모집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위클리 리포트 '넘버즈'를 함께 발전시키고 보완할 구독자 모니터링단 'N-멤버스 (Numbers Monitoring Members)'를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정기적으로 넘버즈 모니터링이 가능한 목회자
- 모집 기간 : 2024년 7월 16일(화) ~ 7월 28일(주일)
- 모집 인원 : 0명
- 주요 활동 : 넘버즈 평가 및 피드백 (월 1회), 온라인 간담회 (분기별 1회)
- 활동 혜택 : 소정의 활동비 지급, 목회데이터연구소 발간 서적 및 주요보고서 증정
- 활동 기간 : 2024년 7월~12월 (6개월 간)
- 신청 방법 : 모니터링단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서 양식 제출
- 결과 발표 : 2024년 7월 30일, 선정자 개별 연락
- 문 의 :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카카오톡 채널

['모니터링단 신청' 링크](#)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